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USA

제 29 대 총회장 이·취임식

Inauguration of The 29th President

| 일 시 | 2023년 5월 20일(토) 오후 5시

| 장 소 | 애틀랜타 한인회관


5900 Brook Hollow Parkway
Norcross, GA 30071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USA

예전에도 지금도 한결같은  사람들의 진로

뒤끝 없고 깔끔한  사람들의 진로

달콤하게  속삭이는 연인들의 진로

품격 하나는 일품인  사람들의 진로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29대 총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PROGRAM

· 사회 MC: 미셸 강

1부 순서 (Part I)

개회선언 이정형 수석고문(Jung Hyung Lee, Senior Advisor)
국민의례(National Rites) 다같이(Together)

국기에 대한 경례(Salute to the U.S. and Korean National Flags)
양국 국가 제창 (U.S. and Korean National Anthems)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Moment of Silence for Fallen Heroes and Patriots)

환영사(Welcome Address) 김형률 이사장(Eric H. Kim, Chairman of the Board)
공로패 증정(Presentation of Appreciation Plaques)

Honorees: Mark Jaffee, president of the Greater New York Chamber Plus 21 others.
황병구 총회장이 Jaffe회장등 21명에게;
미주한상총연 전직회장단이 황병구 총회장에게

이임사(Address from the Outgoing President) 황병구 총회장(Byung Gu Hwang)
신임 총회장 선서(Swearing-in of the Incoming President) 이경철 당선자(Ted Kyungchul Lee)
총연기 전달(KACCUSA Flag Handover)

취임사(Address from the Incoming President)..... 이경철 총회장(Ted K. Lee)
격려사(Congratulatory Message) 김대현 미주 총연 초대회장(Dae Hyun Kim, Founding President)
축사(Congratulatory Remarks)

박윤주 애틀랜타 총영사, Yoonjoo Park, Korean Consul General in Atlanta
Mark Jaffe, President of the Greater New York Chamber of Commerce
Sam Park, Georgia House of Representatives
Pedro Marin, Georgia House of Representatives
Long Tran, Georgia House of Representatives
Craig Newton, Mayor of Norcross City
이흥기 애틀랜타 한인회 회장 Simon H. Lee President of KAAGA

축사 동영상(Visual Congratulatory Remarks)

Jon Ossoff, US Senator / 이철우 경북도지사 / 김진태 강원도지사 / 김관영 전북도지사 / 홍준표 대구시장 /
남한권 울릉군수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김덕룡 세계한상대회연합회 이사장 / 최성환 호주 상공인연합회 총회장 /
권순기 중국 아주경제발전협회 회장 / 강성민 중국 아주조선족기업가 발전협회 회장

* 축사자 명단과 순서는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지역회장 및 내빈 소개(Recognition of Chapter Presidents and Special Guests)

폐회선언(Closing Remarks) 사회자
기념촬영(Group Photo) 다같이(Together)

2부 순서 (Part II)

총연 소개 동영상(Video Presentation on KACCUSA)

건배사(Congratulatory Toasts)

영상 축사(Visual Congratulatory Messages)

한상대회 소개 동영상(Visual Presentation of the 2023 Korean Trade Exhibition in CA)



이임사



황병구

제28대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회장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재임기간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년전 총회장 후보등록을 하면서 총연을 위해 제안한 것이 있었습니다.

1. 지역상의활성화
2. 차세대기업인 발굴육성
3. 글로벌사업본부신설
4. 총연40년사 제작
5. 울산세계한상대회 최대참여

본 내용이 저의 공약이었고 저는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지역상의 회장님들과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초는 단단하게 다졌다 생각됩니다. 어젯밤 잠자리에 누워 지난 2년을 돌이켜보니 정말 설 틈 없이 열심히 뛰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사력을 다해 달려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29대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이경철 회장님은 오랜기간 저희 총연에 몸담으셨고 누구보다 총연을 아끼시고 한 단체의 수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망을 두루 겸비하신 분이십니다. 29대 임기 내 여러분 모두 한마음으로 뜻과 힘을 결집해 주시면 이 단체가 더욱 크게 성장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일은 제21차 오렌지 카운티 세계한상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입니다. 각 위원회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상을 초월할 최고의 대회를 만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예산 60억원 중 본국정부지원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0억원이 미주에 있는 동포기업과 한국내 기업들의 지원으로 약 80%정도 확보되었습니다.

본 대회를 준비하는 조직위원장으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이번 한상대회 유치를 위해 뉴욕, 애틀랜타, 달라스상공회의소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오렌지카운티가 개최장소로 선정된 후에도 3개 도시 상공회의소에서 어느때 보다 열심히 대회준비에 힘을 합쳐 주시는 모습에 아주 큰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훌륭한 사례가 모든 동포단체 깊은 곳까지 전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FAREWELL REMARKS

Byung Gu Hwang

Outgoing President,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USA

Respected members,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for your unwavering support and cooperation throughout my tenure as the 28th President of the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USA (KACCUSA).

Two years ago, when I campaigned for this esteemed position, I presented the following pledges:

1. Activating regional chapters to enhance their impact
2. Nurturing and supporting the next generation of entrepreneurs
3. Establishing a global business center to facilitate international endeavors
4. Producing a comprehensive 40-year history book of our chamber
5. Achieving record-breaking participation in the Ulsan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In pursuit of these commitments, I have worked hand in hand with dedicated regional chapter presidents who share our aspirations.

Together, we have overcome challenges and laid a strong foundation, providing us with immense potential for substantial future growth.

As I reflect upon the past two years, I am deeply inspired by the unwavering dedication and collective efforts we have invested in advancing our shared vision and objectives. My heartfelt appreciation goes out to all those who have contributed their time, energy, and resources to our common cause.

Now, as we inaugurate President Lee Kyung-Chul as the 29th President, it is imperative to acknowledge his longstanding devotion and invaluable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our chamber. President Lee is not only a highly esteemed member of our community but also a visionary leader possessing the essential qualities necessary to guide our organization. With utmost confidence, I believe that under his guidance, unified by a common purpose, our chamber

will experience significant growth during his tenure.

Remaining on my agenda is the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21st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which will be held in Orange County. Our diligent efforts are focused on creating an extraordinary event that surpasses all expectations. Currently, approximately 80% of the total budget of 6 billion won has been secured through the support of Korean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with the exception of 1 billion won provided by the Korean government.

I kindly request your continued support to secure the remaining funds during the next five months.

Lastly, as the chairman of the organizing committee, I have been truly inspired by the exceptional efforts demonstrated by the New York, Atlanta, and Dallas chambers of commerce during the bidding process. Although Orange County emerged as the chosen host city, the unity and collaborative spirit exhibited by these three cities left an indelible impression on me. I believe that such exemplary collaboration should be celebrated within our community and serve as a driving force for the unity and development of the 7.5 million overseas Koreans.

Thank you for your unwavering support and commitment to the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USA. It has been a privilege to serve as your president, and I am confident that our chamber will continue to thrive under President Lee's capable leadership.



취임사



이경철

제29대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회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전 세계 한상인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제29대 총회장 이경철입니다.

저는 오늘, 제29대 총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첫 인사를 드립니다. 뵙게 되어 참 기쁘고, 먼 길 마다 않고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분들의 응원과 지지를 힘입어, 그리고 300,000 미주한인 기업체의 염원을 담아 제 임기동안 “더 큰 성과”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총연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도 설 새 없이 한국과 미국을 오가시며 술한 날들을 조직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시고, 특유의 묵묵함과 끈기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제28대 황병구 총회장님과 회장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병구 총회장님 탁월한 지도력아래 저희 단체는 대단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도약의 원동력이 되었던 정책을 계승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은 우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튼튼한 발판입니다. 그 어떤 말로도 여러분들의 공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저희 집행부는 제28대 집행부가 닦아 놓은 단단한 기반을 바탕으로 다음 2년동안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28대 총회장님과 회장단 여러분을 위해 위

로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희생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불꽃이기 때문입니다. 선대 총회장님과 회장단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마련해 주신 그 발판 위에서 저와 제29대 회장단은 더 높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배님들께서 닦아 주신 그 길 위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우리 단체의 ‘뉴 노멀(New normal)시대’를 제29대 회장단이 앞장서 열어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제적 자유와 개인의 이니셔티브를 존중하면서 미주한인상공인 비즈니스 및 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단체의 미션입니다. 더 나아가 “미주한인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세계한상인들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 단체의 비전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29대 회장단에서는 임기 동안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목표와 공약사항을 소개하며,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존중하고, 소통하며, 아름답고, 건강하고, 화합하고, 소통하는 총연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회원 간에 서로 존중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며 사랑으로 화합하는 그런 협회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구성원 간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활기차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서 우리 총연이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NAUGURAL ADDRESS OF THE 29TH PRESIDENT

Ted Kyungchul Lee

29th President,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USA

Good evening, distinguished and beloved members, esteemed Korean business leaders from around the world, and honored guests who have joined us today. I am Ted Lee. I am humbled and honored to serve as the 29th President of the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USA. This position comes with a profound sense of responsibility.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tend my warmest greetings. It is indeed a great pleasure to have the privilege of meeting all of you, and I am sincerely appreciative of your presence here today, despite your demanding commitments and busy schedules. Inspired by the support and encouragement of all those present in this gathering and driven by the aspirations of our 300,000 Korean American businesses across the nation, I am resolute in achieving "greater accomplishments" throughout my tenure. I solemnly pledge to exert my utmost efforts in fostering the growth and prosperity of our organization.

First and foremost, I want to thank the outgoing President, Byung-gu Hwang, and the executive board members for their unwavering dedication and perseverance in advancing the chamber, even amidst the unprecedented crisis of the COVID-19 pandemic.

President Hwang's exceptional leadership has led us to unprecedented success, and I will continue to uphold the policies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extraordinary development of the Chamber under his guidance. The 29th administration will build on the solid foundation laid by the 28th administration and strive for even greater success in the next two years.

Please join me in a round of applause and words of comfort and encouragement for the 28th President and the executive board.

Your hard work and sacrifices will never be forgotten. They are the flames that illuminate our path. Inspired by your achievements,

the 29th administration will soar even higher. We will not rest on your laurels; instead, we will forge ahead toward a better future.

I respect and appreciate all those who walk this path with me. Today, as the 29th President, I stand here to convey my determination to lead our chamber in embracing the "New Normal" era, which is crucial for a new leap forward.

Our organization's mission is to "respect economic freedom and individual initiative while promoting the growth of Korean American businesses and enterprises." Furthermore, we aim to contribute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enhance its global presence.

To achieve our common vision, the 29th administration will outline the five goals and commitments that will shape our term. Our aim is to present a clear roadmap of the journey we will take together: First, we will create an organization that respects, communicates, embraces beauty, promotes health, fosters unity, and encourages effective communication.

Dear esteemed members,

To create a chamber identity that values respect, communication, and unity among its members, we will increase opportunities for dialogue and understanding among our members. We will work to establish a dynamic and transparent organizational culture, ensuring that our organization becomes healthier and more attractive. We will dedicate ourselves to this goal.

Secondly, we will build upon and advance the various agreements and projects initiated by the previous administration, working diligently to ensure the success of the 21st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and foster its growth.

Dear beloved members,

We are committed to building upon the excellent achievements of the



취임사

둘째, 전대에서 맺은 여러 협약 및 사업을 승계하여 발전시켜 나아가며, 제21차 세계한상대회의 성공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전대의 훌륭한 업적의 결과물인 여러 협력단체, 기관들과의 협약과 계속사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올해 제21차 세계한상대회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새로운 미래를 잇는 역사적인 변곡점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셋째, 총연조직을 질적, 양적으로 발전 확장시키고, 총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주 총연 주최 엑스포인 “미주한상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한국기업들의 미국진출과 미국기업들의 한국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세계한상대회의 레거시 사업인 “미주한상대회”를 정례화, 상설화 함으로써 우리 협회의 질적, 양적 성장과 발전의 초석으로 삼고, 우리 협회가 한미 양국 간 실질적인 경제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 쏟겠습니다.

넷째,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주관 수익사업 등을 통해 건전한 재정 상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다양한 수익창출 모델을 개발, 활성화하여 우리 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단체의 행정력을 보강하고, 지역 챗터 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 차세대를 위한 장학사업과 교육사업 등을 통해 미 주류 사회와의 소통과 교류를 대폭 확대하고 다음세대의 총연을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차세대의 성장과 발전이 곧 우리 총연의 미래”라는 일념으로 차세대를 위한 장학사업과 교육사업을 확대하고, 미국 주류사회와의 협력 망 구축에도 매진하여 “내일의 새벽을 여는 단체”, ‘뉴 노멀(New normal)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강한 단체를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저와 제29대 회장단은 이어받은 불꽃을 지키고 더 큰 불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미주한인상공인들의 열정과 노력은 한인 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빛나는 삶의 역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것은 회원 여러분의 오직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가능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은 저희 단체가 발전해 나갈 엔진입니다.

우리 단체가 회원님들 성공 비즈니스의 든든한 후원자로, 늘 곁을 지키는 친구로, 함께 새로운 꿈을 꾸며 나아가는 희망의 동반자가 되도록 저희의 모든 역량을 다해 저희 단체와 회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불가능을 불가능이라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오늘날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정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가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는 길에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INAUGURAL ADDRESS OF THE 29TH PRESIDENT

previous administration, which have resulted in various collaborative partnerships and ongoing projects with esteemed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We will continue to develop these partnerships and initiatives in a progressive manner. Our goal is to successfully host the 21st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this year, creating a historic turning point that connects us to a new future.

Thirdly, we will focus on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our organization. As part of our efforts to activate chamber activities, we will regularly host the "US Korean Business Expo" organized by the chamber. This expo aims to foster collaboration and engagement between businesses from the United States and Korea. Furthermore, we are committed to actively supporting Korean companies in their expansion into the US market, as well as facilitating the entry of US companies into the Korean market.

Esteemed members,

We are committed to making the "US Korean Business Expo" a regular and permanent event that will enhance the quality and quantity of our organization's growth and development. We will leverage our chamber's potential to foster substantia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urthly, we are committed to establishing a robust financial standing by implementing revenue-generating initiatives that maximize the chamber's resources.

Beloved members,

We will diversify and activate our revenue sources to improve our chamber's financial stability, strengthen our administrative capacity, and address the imbalance among local chapters. We will support balanced development by sharing best practices and resources.

Fifthly, we are determined to greatly enhance communication and engagement with the broader American society. To achieve this,

we will expand our efforts in scholarship and educational programs specifically designed for the next generation. These initiatives will not only foster greater interaction but also prepare the upcoming generation to take on leadership roles within our organization.

Respected members,

We believe that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next generation are the future of the organization". We will expand scholarship and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next generation and establish a collaborative network with mainstream American society. We aim to become a chamber that "opens the dawn of tomorrow" and proactively responds to the changes of the "New Normal" era.

Finally, I and the 29th executive board will strive to protect the inherited flame and transform it into an even greater fire.

The achievements and endeavors of Korean American entrepreneurs have shaped a remarkable legacy of life and contributed to the growth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community over the years.

This was only possible through your steadfast efforts and passion as our members.

Your passion and dedication are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advancement of this organization. We will serve the chamber and its members wholeheartedly, always supporting your successful businesses, being your loyal friends, and partnering with you in pursuing new dreams.

Those who challenge the impossible have transformed the world we live in today. Let us join our efforts and passion to turn impossibilities into possibilities and create a new future.

Thank you.



환영사



김형률

제29대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이사장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이사장으로서 저희 단체의 제29대 회장 이취임식에 환영의 말씀을 전하게 됨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980년 뉴욕에서 설립된 저희 단체는 지난 40여년 동안 성장을 거듭하여 오늘날 현재 미국의 최대 한인경제단체로 부상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황병구 총회장님의 탁월한 리더십 하에 우리 단체는 그 어느때보다도 관목 할 만한 대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그의 수많은 업적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만 들자면, real-time으로 전문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현실에 맞는 조직개편, 미국 주류 사회 경제단체와의 partnership 확대, 회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미국 최대의 group purchasing organization과의 계약체결, 총연 역사상 최초로 총연 역사 집 발간, 모국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통상교류 확대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년간 한국내에서만, 그것도 한국의 정부 자금과 인력으로 정부기관에 의해 개최되어왔던, 세계한상대회를 순수한 민간 봉사단체인 저희 단체가 최초로 해외인 미국에서 주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 규모도 몇배 더 크고, 거의 우리의 자금력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옛말에, “강장 밑에 약졸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큰 성취의 저변에는 우리 회원들의 단합과 열정을 이끌어낸 황병구 총회장님의 뛰어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황회장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취임하는 이경철 신임 회장은 지난 20여년간 애틀랜타 상공회의소를 비롯하여 수많은 한인 단체의 여러 직책을 거치면서 지역 한인 사회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으며 그의 봉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 이 전국구인 우리 미주한상총연에도 장기간 동안 봉사를 병행해 오면서 우리 미국 한인사회의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분이 우리 단체의 신임 회장이 된다는 것은 아주 다행이자 크게 축하할 일입니다. 앞으로 2년동안, 이회장의 탁월한 지도력 하에, 우리 단체의 성공의 역사가 지속될 것을 확신합니다. 신임 이경철 회장을 환영하는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 10월에 캘리포니아의 애너하임에서 한국정부 기관과 함께 제21차세계한상대회를 저희가 주관하게 됨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이 대회에는 한미간의 통상교류 강화를 염원하는 400여개의 전시업체, 100여개의 수입업체 및 4,000여명의 국내외 기업체 경영인들, 다양한 한국 정부 기관등이 참가가 예상됩니다.

저는 미주한상총연의 이사장 겸 10월 한상대회의 공동대회장으로서, 신임 이경철 회장과 황병구 한상대회 조직위원장을 도와 저희 미주총연의 성공적인 전통의 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단합된 노력을 경주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모두 협력하여 한인사회의 밝은 미래를 건설합시다! 감사합니다!



WELCOME REMARKS

Eric H. Kim, Chairman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USA

Ladies and gentlemen, distinguished guests, and esteemed members of the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USA. As the chairman of the board, it is with great pleasure and honor that I welcome you to the inaugural ceremony of our 29th president.

Over the past four decades since our establishment in New York in 1980, our chamber has experienced continuous growth, emerging as the largest Korean American economic organization in the United States. Under the exceptional leadership of President Hwang, we have achieved remarkable growth, including successful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expanded partnerships with American socio-economic organizations, and a contract with the largest group purchasing organization in the US, offering our members significant cost savings. We also published the first-ever 40-year history of our organization and expanded trade exchange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In a significant milestone, our chamber, as a purely private volunteer organization, became the first to host the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in the United States after 20 years of it being held exclusively in Korea. With almost entirely our own resources, we are driving this event on a much larger scale. There is an old Korean saying that "there are no weaklings beneath a strong tree." President Hwang's exceptional leadership has been the driving force behind these achievements. Please join me in applauding President Hwang.

Incoming President Ted Lee, on the other hand, has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local Korean American community, serving in various positions in numerous organizations, including the Atlanta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for over 20 years. President Lee's dedication to KACCUSA and his spirit of volunteerism have greatly contributed to the economic advancement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the U.S. We are fortunate to have someone with such exceptional leadership qualities as our incoming president. Under President Lee's guidance, I am confident that our chamber's success will continue to thrive. Please join me in giving President Lee a warm round of applause.

Furthermore, I am proud to announce our partnership with Korean government agencies as we host the prestigious 21st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in Anaheim, California in October. This highly anticipated event will bring together over 400 Korean business exhibitors, 100+ importers, 4,000 entrepreneurs, and various Korean government entities, aiming to strengthen trade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Korea.

In my capacity as the board chair and co-event chair of our October trade event in California, I promise to support both President Lee and Chairman Hwang of the October event, ensuring that our collaborative efforts contribute to the continued success and legacy of our chamber. Together, we will build a brighter future for our community and beyond. Thank you.



축사 · Congratulatory Remarks



Mark Jaffe
President & CEO

Greater New York Chamber of Commerce



May 20, 2023

Ted Lee, President Elect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USA

Congratulations,

I look forward to your upcoming inauguration as the 29th President of the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USA (“KACCUSA”).

As you take on this most important role (representing over 300,000 Korean American businesses in the USA, I am extremely proud that I will be able to assist you as KACCUSA’s newly appointed Chairman of National Business Affairs and Legal Advisor. I look forward to helping you in any way possible.

Our organizations have a common interest in providing a forum for networking and information to our members. We both also advocate with governments and promote fair trade relations.

Once again, congratulations on your impending inauguration and I wish you all the best in your new role.

Sincerely,

Mark Jaffe,
President & CEO



20 West 44th Street, 4th Floor · New York, NY 10036
Tel: 212-686-7220 · 212-CHAMBER · www.chamber.nyc



축사·Congratulatory Remarks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의원입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40주년사 발간」과 제29대 이경철 총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런 의미 있고 귀중한 책자에 인사말을 남길 기회를 주신 황병구 총회장님께도 그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는 1980년 뉴욕에서 시작해 현재 30만 미주한인기업과 150만 미주한인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미주 한인의 최대 경제단체입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는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꾸준한 협력을 통해 한미 통상 교류와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주류사회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미국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시, 전북도 등 대한민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기중앙회와도 MOU를 체결하고, 지역 특산물 해외진출과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고 미국기업에 대한 투자 알선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등 한국과 미국과의 경제 교류 증진에도 크게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40주년사’에는 미국 최대 규모의 한인 경제단체로서의 총연합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현 지역 상공회의소들의 활동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연합회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우리 교민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생활해 오셨고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왔으며, 세계 속의 한국으로 뻗어나가는 미래의 기반을 세우셨는지를 배우는 중요한 교과서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미국 내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와 업종에서 두각을 드러내 미국의 주류세력으로 성장한 우리 미주한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함께 미국내 우리 동포들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40주년사 발간」과 이경철 총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Congratulatory Remarks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40년사 발간과 제29대 이경철 총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40년사' 발간을 준비해주신 황병구 총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와 헌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순간에도 역사를 함께 만들고 계신 30만 미주한인기업과 150만 한인상공인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KACCUSA)는 30만 미주한인기업과 150만 한인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미주 한인 최대 경제단체입니다.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의 공식 회원 단체이자, 현재 미국 내 6만 명의 회원과 주요도시 78개 지역캡터를 아우르며 소통과 발전을 이끌어 오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미국 주류 사회와 한인사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신 그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국이 어려울 때마다 든든한 후원자로 항상 먼저 손을 잡아주셨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셨습니다. 미주한인동포 여러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 군사 대국, 선진기술 보유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상황이 어렵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 흐름 속 우리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굴욕외교와 호구외교로 국격은 국익도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의 행진으로 민생은 하루하루 힘에 부치고, 세계적 추세와 동떨어진 에너지 정책이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서 민생을 살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고국을 떠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뿌리를 내린 동포 여러분처럼 반드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해외에서 진행되는 '제21차 세계한상대회'가 255만 재외동포들이 마음을 모으고 단합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자긍심인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가 과거 40년을 넘어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의 40년사 발간과 이경철 총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재미 동포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축사·Congratulatory Remarks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미주 한인상공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인상공인들의 희망과 화합의 장이 될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제28·29대 총연합회장 이·취임식』이 성황리에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상공인 회원분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를 훌륭히 이끌어주신 황병구 총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님들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회원분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으며 새로 취임하시게 된 이경철 총회장님께도 진심 어린 축하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한미상공인들의 활발한 교류와 화합을 이끌어주시고 미주상공총연의 발전을 이루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미주상공총연은 미주 한인상공인의 최대 단체로써 산하 78개 지역상공회의소와 30만 미주 한인사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만 한인상공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간 1981년 뉴욕에서 설립된 이래 40년 동안 한미상공인들의 성공적인 교류와 발전을 이끌어왔으며, 4000여 미국상공회의소 및 수출입협회를 비롯한 각 산업 분야별 협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한미간의 통상·교류를 확대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경제와 문화 교류협력의 최일선에서 양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노력 해주시는 미주동포 여러분이 계시기에 양국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양국의 협력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미주상공총연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한미상공인들 간의 발전적인 교류와 아울러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서 희망과 화합의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 또한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으로써 6월 5일 개칭하는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들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핵심적 역할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를 통해 회원 간 우의를 다지고 모든 회원분들의 발전과 행복을 도모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뜻깊은 행사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Congratulatory Remarks



김태호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회의원

미주 한인상공인을 비롯한 미주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김태호입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KACCUSA) 40년사 발간과 제29대 이경철 총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그동안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를 이끌어오신 제28대 황병구 총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말 12년 만에 성사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민방문을 동행하고 돌아왔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혈맹인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성과가 있었고, 미주동포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과 환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미동맹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150만 한인상공인을 비롯한 263만 미주동포 여러분들이 양국관계 발전의 토양을 든든하게 다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는 미주동포 여러분들이 흘린 땀과 눈물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한미동맹을 있게 한 개척자이자 버팀목이 되어주신 미주동포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는 1980년 창립 이래 40년간 30만 미주한인기업과 150만 한인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미주 주류사회의 연결 통로로서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미주사회에 정착하면서 담아 놓은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모국의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가 앞으로도 한인상공인을 비롯한 미주동포 여러분의 권익을 대변하고 동포사회 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동포 여러분들께서 현지에서 정착하면서 활약하는데 국회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번 40년사 발간은 미국에 진출한 동포들의 치열한 삶의 증언일 뿐 아니라 한미관계 발전의 생생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40년의 성과를 잘 정리하는 것은 앞으로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가 더 크게 발전하는데 있어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미주 한인 이민과 한미관계 발전의 역사를 총망라하는 중요한 기록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40년사 발간과 이경철 총회장님의 취임을 거듭 축하드리며, 한인상공인을 비롯한 미주동포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Congratulatory Remarks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역사를 같이 해온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의 40년사 발간과 제29대 이경철 총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제28대 황병구 총회장님과 회장단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는 한국과 미국에서 경제·통상·문화교류, 사회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동포 경제인의 권익신장과 상호발전을 도모하였고, 고국 경제성장의 소중한 밑거름이자 밑알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왔으며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피로 맺은 혈맹”이자 “철의 동맹국가”로 굳건한 신뢰관계를 구축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동행은 더욱 단단하게 이어지리라 확신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수준의 모범적인 상생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경상북도 역시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하이오주와 자매결연(1982년)을 체결한 후 다양한 우호협력교류를 진행하여 왔고, 향후 다른 주와도 상생의 협력관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경북도와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는 경제, 문화, 관광,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기업 간 비즈니스 활동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경북도와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는 한국과 미국의 미래번영을 위해 한 배를 탄 동반자입니다. 양 국가 및 양 기관 간 경제통상 및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단단한 교두보 역할을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만들어 가길 희망합니다. 지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에서 보내주신 방역물품은 경북도민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북도는 위기를 기회와 희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양국 간의 상생발전을 염원하는 미주상공인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도 더 많이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40년사 발간과 이경철 총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Congratulatory Remarks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먼저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KACCUSA) 40년사 발간과 제29대 이경철 총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KACCUSA)는 1980년 창립 이래 성장을 거듭하며 150만 한인상공인을 대표하는 미주한인 최대 경제단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국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바탕으로 한미 양국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모국의 수출 증진과 경제 발전에도 막대한 기여를 해오신 역대 모든 회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한·미 경제 동반성장의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해온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가 그간의 발전과 성과를 기록한 40년사를 발간하시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번 40년사 발간이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널리 알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이정표를 세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3년은 한미 양국 관계에 의미가 큰 해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안보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양국의 동맹 관계를 한층 더 굳건한 토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처음 해외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상대회가 미국에서 열림으로써 미주 한인상공인을 중심으로 한국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 발전은 부산에도 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구글을 비롯한 미국 글로벌 기업들이 부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인재 양성과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은 아시아 최대의 창업도시로 발돋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은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을 세계 7대 강국으로 우뚝 세울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회원님들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산 기업들과 더불어 담대한 성장의 길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가 두 팔 걷고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술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대한민국의 경제영토 확장에 이바지해 오신 황병구 총회장님과 미주 한인상공인 여러분께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40년사 발간과 이경철 총회장님의 취임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모든 회원님들의 건승과 번창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Congratulatory Remarks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홍준표입니다.

먼저, 250만 대구시민과 함께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40년사 발간과 제29대 이경철 총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제28대 황병구 총회장님과 회장단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으로 그 의미가 각별한 해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오신 150만 한인상공인들의 지난 반세기 간의 활동을 기록하고 기리는 것은 매우 뜻깊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는 1980년 설립 이래로 미주 한인 기업과 한인상공인을 대표하는 미국 상공회의소 공식 회원 단체로서, 한인들이 미국의 주류사회로 진출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고, 미국에서 한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며, 한국과 미국 간의 비즈니스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가교역할 등을 해 오셨습니다.

비즈니스 교류를 위해 대구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마련하고자 산업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 첫 단계로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중남부 중추공항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도 제정되어 한반도 중남부 경제권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향후 국내 항공 여객 물류의 25% 이상을 책임지는 첨단 여객 물류 복합 공항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203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개항되면 대구와 미국 간 교류 협력이 더욱 쉬워지고 여러분과의 경제 교류도 훨씬 많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대구의 전통산업인 섬유, 자동차부품, 기계금속, 안경을 벗어나, 현재는 ABB(AI, Big Data, Block Chain),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비메모리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등 5대 신산업으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으니, 한인상공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구가 더욱 글로벌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의 40년사 발간과 이경철 총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한미 경제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모든 미주 한인상공인들과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Congratulatory Remarks



김덕룡

사단법인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이사장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이사장 김덕룡입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이경철 신임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황병구 회장님 그리고 김형률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 비상사태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고통과 피해를 입은 동포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1980년에 설립한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는 40여년의 역사를 이어온 전국 조직의 한인상공인연합체입니다. 750만 재외동포 사회와 세계한인상공인들의 실질적 구심점으로서 그 위상과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신임 이경철 회장은 미국 동남부지역인 애틀랜타와 조지아를 중심으로 사업을 성공시켜왔으며 미주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성공한 기업가입니다. 또한 미국내 다양한 한인단체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미주한인상공회의소와 한인사회의 발전과 동포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또한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의 임원으로서 21대부터 28대 이르기까지 긴 기간 동안 이사, 부이사장, 동남부협의회장, 수석부회장 등 주요직책을 맡아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배려와 솔선수범의 봉사정신은 전임회장들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열어준 바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는 2023년 올해는 모국 대한민국과 해외에 계신 우리 한민족 동포 여러분에게 특별한 희망과 함께 꿈이 시작된 해입니다.

우리 정부가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대우하고 법률적으로 보호를 담당하는 중앙정부 기관인 재외동포청이 6월에 설립되고, 10월에는 전 세계 한인들이 다 모이는 정부가 주관하는 세계한상대회가 해외에서 처음 열리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이임하시는 황병구 회장은 해외에서 최초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 조직위원장으로서 대회를 성공시켜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으며, 불철주야 중흥무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가 적극 협력하여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출발하는 이경철 회장은 솔선수범 봉사정신으로 미국 사회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과 영향력을 보다 강화하여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참여를 통한 미주 한인들의 주류사회 진출에 견인차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오렌지카운티 세계한상대회를 계기로 한국기업들이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더 넓게 활동하여 세계국가 대한민국을 향한 동력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경철 회장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이임하는 황병구 회장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모든 분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Congratulatory Remarks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장 유정복입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40년사』 발간과 제29대 이경철 총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제28대 황병구 총회장님과 회장단 여러분의 공헌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주 한인 최대 경제단체인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KACCUSA)는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공식 회원단체로서 30만 미주 한인 기업과 150만 미주 한인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미주 한인상공인들이 미국 경제·문화예술·체육 등 주류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교류 확대와 우호 증진의 지평을 여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23년 제21차 세계한상대회' 협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로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과 세계한상대회 참여를 위해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120년 이민사에서 인천시는 인하대학교라는 미주 한인들이 남긴 기념비적인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40년사』는 미주 한인상공인들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

책자 발간을 위해 애쓰신 특임위원장 정광철 교수님께도 노고와 헌신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40년사 발간과 이경철 총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와 150만 미주 한인상공인과 재미동포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복



축사·Congratulatory Remarks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먼저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제29대 이경철 총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취임식에 참석하신 내외빈 여러분, 광주광역시장 강기정입니다. 지면으로 남아 축하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는 미주한인 최대 경제단체로 한인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며 미국 주류사회와의 연결 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및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과 소상공인의 미국진출을 지원하였고, 한미간 교류 확대와 우호 증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우리 상공인들이 결코 외롭지 않았던 것은 여러분이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입니다.

지난해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회장단이 우리 시청을 방문하여 광주의 좋은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고 하신 기억도 생생합니다.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국가간 교역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기에 광주와 미국을 잇는 '경제외교사절'로 활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주시도 더 많은 투자유치와 적극적인 기반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이·취임식을 축하드리며, 이경철 총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회원들이 일치단결하여 새로운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아울러 <제21차 세계한상대회>도 성황리에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Congratulatory Remarks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이장우입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40년사 발간과 제29대 이경철 총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책자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황병구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40여 년간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는 30만 미주한인기업과 150만 한인상공인의 권익 신장을 위해 세계무대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조국과 동포를 사랑하는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가족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이번 40년사 발간은 그동안 총연합회의 노력과 업적이 담긴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이번 책자를 통해 온고지신의 배움을 이루고, 앞으로 40년을 그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40년, 거칠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한결같은 열정으로 성공 신화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역사상 첫 해외대회인 '2023년 제21차 오렌지카운티 세계한상대회'역시 총연합회의 강인한 저력을 발휘하여 성황리에 마무리하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앞으로 펼쳐질 40년도 한미 양국의 견고한 교두보로서 흔들림 없는 발전을 이루어나주시길 바랍니다.

대전도 민선 8기 출범 이후 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토대로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 기업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지정, SK온 연구시설, 독일 머크사 생산시설 투자협약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행보를 지속할 예정이니, 미주한상총연도 대전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40년사 발간과 이경철 총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Congratulatory Remarks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먼저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제29대 이경철 총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제28대 황병구 총회장님과 회장단 여러분의 공헌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는 1980년 11월, 뉴욕에서 미주한인상공인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은 미주한인기업과 한인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최대 경제단체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제20차 세계한상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황병구 회장님을 비롯하여 200여회원들이 참가해주셔서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행사를 위해 헌신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업도시 '울산'이 자랑스러운 생태도시이자 대한민국을 이끄는 성장엔진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올해는 세계한상대회 처음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서 제21차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풍성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 함께 하여 더욱 발전적인 한인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제29대 이경철 총회장님과 회장단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축사·Congratulatory Remarks



김진태
강원도지사

150 미주한인상공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원도지사 김진태입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40년사」 발간과 제29대 이경철 총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50만 미주한인상공인과 30만 미주한인기업을 대변하는 미주 한인의 최대 경제단체,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황병구 제28대 총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40년의 역사를 기록하시는 그 뜨거운 열정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 책자가 세계한상대회 역사상 첫 해외대회인 2023년 제21차 오렌지카운티 세계한상대회 현장에 배포된다니 의미를 더합니다. 2023년은 한미 간 의미 있는 해입니다. 먼저, 미주 한인 이민이 1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하와이에서 시작한 102명의 미주 한인사회가 아시아계에서 다섯번째 큰 규모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구성원으로 미국 전역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한미 통상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미 간의 동맹이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한미 동맹은 자유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핵심 축을 담당해왔고, 이제는 첨단기술, 국제안보 등 미래를 향해 함께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관계가 되갈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는 해입니다. 750만 재외동포와 세계 한인단체 1만개를 위한 정책개발은 물론이고 한인사회의 공식 소통창구 역할로 네트워크의 질적 양적 증가를 가져올 것입니다. 재외동포청은 LA 등 세계 한인사회의 염원이었습니다. 한인사회는 한국정부가 글로벌, 세계화를 외치던 1990년대 초부터 재외동포 전담기구 신설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일찌감치 한국과 세계 한인사회의 교류 확대와 협력 중요성을 알아본 셈입니다.

미주 한인들의 역량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입증 되었습니다. 지난 미국 중간선거에 하와이에서 첫 한인 부지사가 선출되었고, 재미동포가 쓴 재일동포 이야기 파친코는 뉴욕타임즈 선정 베스트셀러로 선정되며, 세계인을 감동시켰습니다. 정치, 문화 뿐이 아닙니다. 이번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이신 하기환 회장님은 아메리칸 드림으로 미국의 대형 유통사를 일궈내셨습니다. 2023년은 강원도에게도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강원도는 6월 11일,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입니다. 글로벌이라는 비전에 걸맞게 강원도도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더 나아가 재미, 재외동포 분들의 글로벌 역량의 기운을 받아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40년사 발간과 이경철 총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이 책자가 배포되는 2023년 제21차 오렌지카운티 세계한상대회도 글로벌 거상부터 미래 한상 네트워크를 책임질 차세대 한상까지 풍성한 교류의 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Congratulatory Remarks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먼저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의 제29대 이경철 총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28대 황병구 총회장님과 회장단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와 헌신에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는 1980년 뉴욕에서 창립된 이래 미국 내 78개지역 한인상공회의소의 연합단체로서 미주 한인기업과 150만 한인상공인인권의익을 대변하고 있는 미주 한인들의 최대 경제단체로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경제뿐 아니라, 문화 예술 및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고, 한미 간 교류 확대와 우호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미주한인상공인들의 자부심을 이어가고, 지역 상공회의소의 발전을 견인하는 단체로서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의 큰 활약을 기대하며,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기업들의 새로운 수출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지속 협력하는 동반자로서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새롭게 출범하는 제29대 이경철 총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더욱 발전된 미래를 위해 역할을 다해주시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가 진 태



축사·Congratulatory Remarks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40년사’ 발간과 제29대 이경철 총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주한인 이민 120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우리 상공인 동포들의 치열한 역사가 담긴 책이 나오게 되어 더욱 뜻 깊습니다.

30만 미주 한인 기업과 150만 미주한인상공인의 든든한 구심점이 되어 오늘의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신 황병구 총회장님과 떠나면 타국에서 맘 흘러 삶의 기반을 일구어 오신 동포 여러분께도 진심을 담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주한상총연은 한미 양국의 경제적 교류·협력에 힘써오며 교민사회와 조국을 이어주는 탄탄한 가교가 되어왔습니다. 한인 상공인들의 권익 신장에도 앞장서오면서 우리 동포들이 상공업 토대를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굳건한 의지로 생업을 이어가고 계시는 한인상공인 동포 여러분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국땅에서 성공신화를 이룬 한국인의 저력으로 지금의 어려움도 이겨내실 것이라 믿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1월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와 2023 세계한상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전남 기업의 대미 수출확대와 양 지역의 경제단체 교류 활성화를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미주한상총연을 비롯한 세계동포 경제인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는 ‘전남 방문의 해’ 2년 차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이벤트인 순천만국제 정원박람회를 비롯해 연중 세계적인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전남을 방문하셔서 가장 한국적인 멋을 간직한 남도의 매력을 한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40년사’ 발간과 이경철 총회장님의 취임을 거듭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Congratulatory Remarks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30만 미주한인기업과 150만 한인상공인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 온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의 40년사 발간과 제29대 이경철 총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멀리 타국에서도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미주한인상공회의소의 미래를 위해 그동안 애써주신 황병구 총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이 미주한상총연의 앞날에 훈풍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와 전라북도는 2022년 11월 경제교류협력 업무협약을 계기로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주한상총연은 세계경제 불안에 따른 물류 공급망 혼선과 급격한 금리 인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국 78개 지역의 한인상공회의소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바탕으로 공동의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국제 통상 교류의 최일선에서 계신 여러분이 내주시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전북 경제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도 경청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전북의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은 더욱 희망찬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라북도가 더 특별해집니다.

2023년 전북은 민생과 혁신, 실용의 도정을 펼쳐나갈 중요한 시점입니다.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를 만들고, 함께 성공하는 기회의 땅 전북을 만들기 위해 회원분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미주 한인상공인과 함께하는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미주한상총연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미래 도전과제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전북의 새로운 성장판을 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미주 한인상공인 여러분께서 앞으로 펼쳐질 희망찬 미래에 계획하신 모든 일이 더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언제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인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도움을 드리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40년사 발간과 제29대 이경철 총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만리타향에 계신 동포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축사·Congratulatory Remarks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40년사 발간과 제29대 이경철 총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미(韓美)간 교류 확대와 우호 증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신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황병구 총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와 헌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80년 설립된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는 30만 미주한인기업과 150만 한인상공인의 권익을 대표하는 미주 한인의 최대 경제단체입니다. 한미 통상교류를 이끌며,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고, 문화예술과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위한 교두보 역할도 해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발간된 40년사는 한미 통상교류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해준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의 무수한 땀방울과 성과를 돌아보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총연합회의 역사가 담긴 이 책자가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동포 경제인에게 공감과 위로로 다가와,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갈 힘을 주는 귀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제주에서 3차례나 열렸던 세계한상대회가 역사상 첫 해외대회로 열리게 된 점 축하드리며,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동포 경제인들이 돈독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로 협력해 더 큰 번영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세계 곳곳을 누비며 대한민국과 기업의 발전을 이끄는 한상(韓商) 여러분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해상왕 장보고의 당당한 기상과 뛰어난 수완을 이어받은 여러분이 세계 속에 빛나는 대한민국을 이끌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40년사 발간과 이경철 총회장님의 취임을 거듭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Congratulatory Remarks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존경하는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KACCUSA) 여러분,
그리고 제29대 총회장 이·취임식 내외귀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인특례시장 이상일입니다.

먼저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40년사 발간과 제29대 이경철 총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제28대 황병구 총회장님과 회장단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KACCUSA)의 위대한 업적과 발전을 축하합니다. 40년사를 발간하며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조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번 발간물이 미주한인상공인의 업적을 기리고, 미래를 향한 도약의 의지를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KACCUSA)는 미주 한인 경제단체 중 최대 규모로, 150만 한인상공인과 30만 미주 한인기업을 대표하며, 미국 내 한인상공회의소 6만명의 회원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인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한국과 미국 경제 간의 다리역할을 하며,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치는 등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KACCUSA)는 다방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KACCUSA)가 주도하는 이번 제21차 오렌지카운티 세계한상대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해 외에서 개최되는 대회로, 미주 한인사회의 자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참가자들이 모여,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교류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 것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의 거점 한국사무실을 용인에 개소하여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은 최근 첨단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위한 국가첨단 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중심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용인시의 강소기업들도 미국 수출길을 열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미국사회에서 고난을 극복하며 발전해온 한상 여러분의 담대함과 통찰력은 다가오는 40년을 위해 우리가 물려줘야 할 유산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국의 기업인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며 또 다른 성공의 40년을 가꾸어 갈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40년사 발간과 이경철 총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제21차 세계한상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Congratulatory Remarks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30만 미주 한인 사업체와 150만 상공인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의 40년사 발간과 제29대 이경철 총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제28대 황병구 총회장님과 회장단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덕에 오늘날 ‘무역 국가’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1980년 ‘미주상공총연’이 첫발을 내디딘 이래, 미국에서 가장 큰 한인경제공동체로 든든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IMF부터 2008년 금융위기, COVID-19까지 우리는 여러분 덕분에 보란 듯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미주 한인 소상공인은 가장 오래된 ‘한국의 얼굴’이었습니다.

한류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이전부터, 한인 특유의 친절하고 성실한 ‘이웃 사장님’ 이미지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TV나 인터넷이 아닌, 미국인들에게 피부로 전달되는 여러분의 따뜻한 정(情)이 모국의 위상을 드높여주셨습니다.

수원은 미주 한인들과 깊은 연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와 함께 한인 사업체를 지원해 왔습니다. 한인상공회의소가 미국 진출을 염원하는 수원기업의 든든한 발판이 되어주셨고, 수원도 회원사들이 모국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40주년을 맞아 열리는 ‘세계한상대회’의 의미가 수원에게는 더 각별합니다.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가 준비하는 이번 대회가 미주 한인 소상공인들의 지난 4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백 년을 준비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며, 수원도 여러분의 뜻 깊은 여정에 동행하겠습니다.

축사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미주한인상공회의소 황병구 총회장님과 대회 준비에 전념하고 계실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노상일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먼 타지에서 오늘도 비지땀을 흘리고 계신 한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한 번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의 40년사 발간과 이경철 총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 29대 총회장 이·취임식을 축하합니다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GA-ATL

kaccga.org

회장: 선박 / 명예회장: 이영범 / 이사장: 최주환 / 자문위원장: 이주배 / 사무총장: 이창향



제 29대 총회장 이·취임식을 축하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애틀랜타 협의회
(대통령직속자문기구/헌법기관)

회장: 김형률

수석부회장: 박형선 / 부회장: 정원탁, 권오석, 이은자 / 상임위원: 임형기

www.puac.go.kr



제 29 대 총회장 이·취임식을 축하합니다



KOLPING



코핑이벤트
로 핑이벤트
축하합니다

*Good shot!
Good life!*

KOLPING & BTR, USA

COMING SOON

한오동 / 한수지
대표

718-813-3383

kolpingusa@gmail.com

2730 North Berkeley Lake Rd., NW Duluth, GA 30096



제 29대 총회장 이·취임식을 축하합니다



홍승원

미동남부한인회연합회 회장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수석부이사장



REPRESENTATIVE OF KOREAN COMMUNITY
이틀랜타 한인회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Greater Atlanta

회장: 이흥기 / 이사장: 이경성

www.atlkoreanamericanassociation.org
Tel: 770-813-8988 Fax: 770-814-8779 / e-mail: atlantaka@gmail.com
5900 Brook Hollow Pkwy., Norcross, GA 30071, USA



www.wnbfactory.com



제 29대 총회장 이·취임식을 축하합니다

GOOD NUTRITION

대표: 남기남

알칸사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 이창헌



달라스 한인 상공회

Greater Dallas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GDKACC Since 1976

회장: 이상윤

웨잇빌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김현철



시카고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이제니 / 이사장: 정대환

e-mail : ckacc022@gmail.com

Contact : 484-995-1555 (사무총장 : 고명주)

Forsythia 개나리집

Forsythia는 가정폭력의 피해 여성들과 배우자에게 학대받는 여성들을 위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피해 여성과 자녀들이 함께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드립니다.



Forsythia Foundation

P.O BOX 48514

Atlanta, GA 30362

Tel: (404) 934-9000

Contact@forsythiafoundation.org

개나리집
봉사회원
모집합니다.
(404)934-9000



(770)401-7616

리장레식장 및 화장장

대표: 이국자



미주 조지아 뷰티 서플라이 협회

UNITED GEORGIA BEAUTY SUPPLY ASSOCIATION

대표: 미미 박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우회 정정자



제 29대 총회장 이·취임식을 축하합니다



고 김선엽 제 27대 총회장 유족일동

World-Okta
ATLANTA

세계한인무역협회 애틀랜타지회
지회장 박 남 권



First IC Bank

굿 디자인
퀄리티
프라이스

이것저것 다하는
물어보면 다하는
두고두고 맘에드는
우리동네 사인 프린팅
BNP

678-274-7275
design@bannerNprint.com
2100 Norcross Pkwy STE 130
Norcross, GA 30071

bannerNprint.com
fast printing and shipping



Bon Cosmetics

미시화장품

대표: 조미숙



조지아 애틀랜타 뷰티협회
GEORGIA ATLANTA BEAUTY SUPPLY ASSOCIATION

회장: 이강하

www.gabsabeauty.com



HANSANG



제 29대 총회장 이·취임식을 축하합니다

김백규

세계한상대회운영위원

국순당

이제 한국술이다!



주류최초대한민국
우수문화상품 KOREA

BEKSEJU USA
Proud of Korean Traditional Wine

BEKSEJU USA, INC.
국순당 이주 총판 BUDOKSOONDANG U.S. IMPORTER AND DISTRIBUTOR
7123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O. 323-869-9100 F. 323-869-9101
Email: bekseju@beksejuusa.com
www.beksejuusa.com





제 29 대 총회장 이·취임식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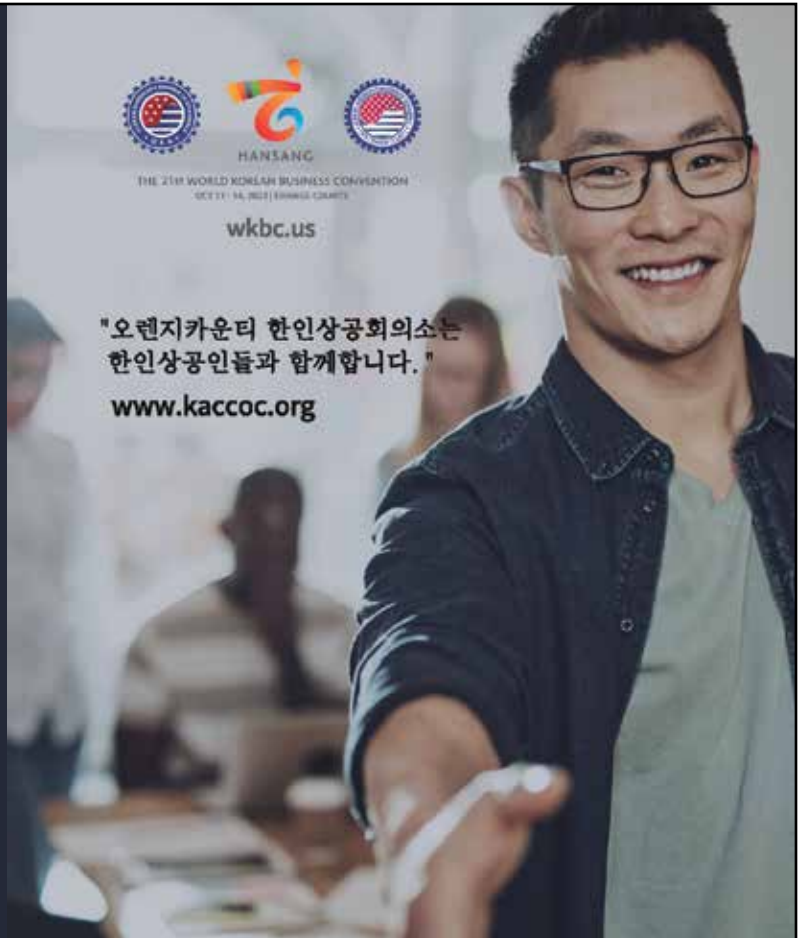


THE 21st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OCT 21 - 24, 2021 | EMMETT COUNTY

wkbc.us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는
한인상공인들과 함께합니다."

www.kaccoc.org



대표: 노상일



Worldwide Boundless Logistics Platform



NGL Transportation

www.ngltrans.com